

2012. 10

www.dail.org

10월 4일(1004)은
천사의 날입니다.

다양성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다일
공동체

다일
천사
병원

1004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이 가을 열매 맺게 하소서...

수학의 기쁨이 있는 감사의 절기, 2012년 한가위를 맞이하여, 후원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고마움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은 다일공동체의 2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9월 4일 진행된 창립기념행사에는 각양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온마다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분원장 워크샵을 위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미주에서 온 해외분원장들과 국내 분원장들이 모두 함께 모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자의 사명실현지로 돌아가기 전에 24년 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다일공동체 사명선언문으로 우리의 새롭고도 뜨거운 결단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매년 10월 4일에는 천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천사운동을 시작한지 20년, 천사병원이 세워진지 10년이 되는 해이기에 그야말로 벽찬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다일천사병원이 개원된 지 만 십년이 되는 2012년 10월 4일, 천사데이를 기점으로 천사병원이 천국의 노래로 넘쳐나며, 다시 천사들로 봄비는 치유의 전당이 되고, 이미 그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 천국 가기 전의 작은 천국이 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의 소외된 이웃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절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봉사의 지경을 계속 계속 넓히며 꾸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여러 곳의 강연장에서 24년 동안 제가 만났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하여 현장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즉석에서 주머니를 털어 점심 한 끼니 비용부터 시작하고자,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참사랑의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각자의 사명실현지에서 더욱 풍성히 열매 맺는 이 가을되시기를...

2012년 10월에
작은형제 (회) 월 5 목사 올림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다일천사병원 10주년 기획 – 돌아보고 내다보다 3
- 07 Review 2012 다일페밀리 홈커밍 스쿨, 다일공동체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 10 다일의 현장 묵안리다일평화의마을
- 12 다일의 현장 밥페나눔운동본부
- 13 포토 에세이
- 14 해외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 16 해외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18 아름다운 변화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훨체어 캠페인
- 19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다일천사병원 10주년,
천사운동 20주년!
가슴 따뜻한 정답과 사랑을 나누고,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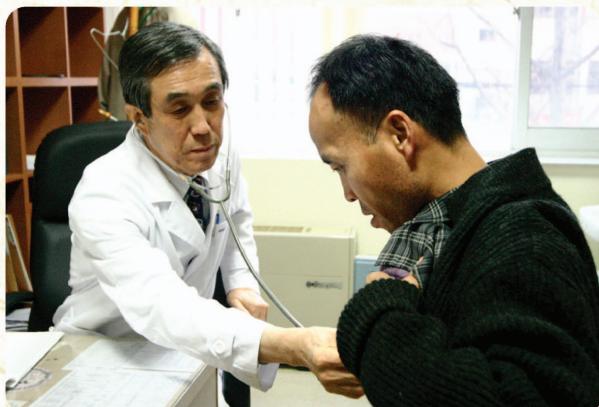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2년 10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형길 신진희 강효정 사진 | 이중원 디자인 | 애드비전 인쇄 | 문성인쇄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날개 없는 천사들과의 동행

다일천사병원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9월 19일, 다일천사병원의 의무원장으로
설거주실 이선영 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했
습니다.

이선영 선생님은, 작년 한 달간 천사병원
에서 자원봉사로 의무원장의 빈자리를 채
워 주었던 진정 날개없는 천사입니다.

다일천사병원과 함께해 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일천사병원이 궁금하다고요?”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일천사병원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웃을 향해 내미는 손 - 의료적 재능기부

다일공동체 무료진료소는 청량리 로터리 근처 6층 건물에 다일공동체 ‘나눔의 집’을 열자마자 우리의 뜻을 전해 들은 갈릴리 의료선교회가 맨 먼저 달려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료진료는 매주 토요일이면 의대생과 의사가 직접 시장에 나와서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가 인근에 퍼져 날이면 날마다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의료진과 함께 남은 약을 들고 588거리를 한 차례씩 돌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진료소에서는 환자에 비해 치료의 손길이 너무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희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일공동체 나눔의 집 무료진료에 동참하겠다고 하나둘씩 찾아오면서 서울의 다섯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청량리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였던 봉사자들이 있었는데, 진료뿐만 아니라 설거지 봉사에도 앞장섰던 최영아 부부와 경희대 한의학과 학생들, 기독교 의료선교팀 한국누가회(CMF), 그리고 침술 진료로 일약 스타가 된 대광고 등학교의 김학복 목사와 틀니 제작 치료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염상국 치과의원 및 경희대 치대생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후에 최영아 선생님은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하면서 1대 의무원장으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감기약 한 봉지 마음 놓고 못 사먹던 사람들이 꽂보다 아름다운 젊은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하고, 치료와 간호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더 없는 기쁨이자,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의료봉사 참가 학생들은 없는 용돈을 털어 의약품을 준비하고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모금을 해서, 노인들의 틀니도 직접 제작하는 등 매 주말 금 쪽같은 시간을 쪼개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의 자원봉사현황

- 병원 내 모든 활동에서 정기/비정기 자원봉사자 투입
- 월 평균 봉사자 400명
- 전문의 : 정기적자원봉사 의료진, 비정기적자원봉사의료진
(수술, 특이환자, 해외봉사 등)
- 간호/약제 : 은퇴간호사, 약사 등 Rotation
- 사회복지 : 환자상담 지원 등 요일별 Rotation
- 간병 : 전문간병인, 일반정기 자원봉사
- 기타영역 : 정기/비정기 자원봉사자
(주방, 세탁, 이미용, 야간당직, 청소, 재가복지 등)



Focus 다일천사병원 10주년 기획 – 돌아보고 내다보다 3

협력병원 및 협력단체

서울의료원, 동부시립병원, 적십자병원, 명동밝은세상안과, 초인스이비인후과, 서울대 치의대, 중앙대 성형외과, 김호철 방사선과, 포도나무 정형외과, 명지정형외과, 장신대 외국인유학생 지정진료, 희년의료공제회, 좋은아침외과, 동부제일병원, 상계백병원, 고려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단 탑병원

실습활동

- 의과대학실습 :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경북대학교, 원주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
- 간호대학실습 : 의과대학과 동일 + 이외 3년제 대학(서울간호대학교, 계명간호대학교 등)
- 사회복지실습 : 한동대학교, 천안대학교, 동덕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백석대학교, 호서대학교, 강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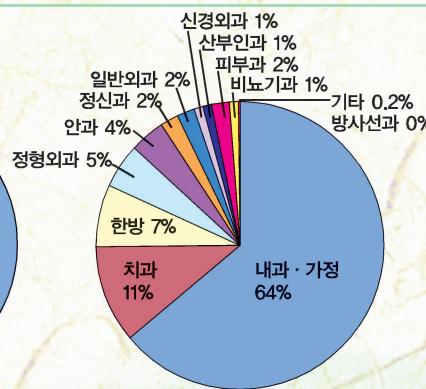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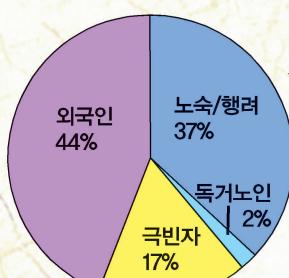
우리가 손을 내민 이웃들은 누구?

다일천사병원을 찾는 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수입도 없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일차적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돌봐드릴 가족이 없는 가난한 노인 또는 호스피스환자와 많은 병원비에 수술이나 입원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입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 자원봉사 의료진으로 운영되는 과는 주 1~2회의 진료를 통해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 수술실에서는 구순구개열 수술, 지방종제거술, 자궁근종 자궁척출수술, 탈장절제술, 피부이식수술, 발가락동상절단수술, 상



다일천사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가정의학과, 내과, 부인과, 신경외과, 안과, 일반외과, 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비뇨기과, 한방과

하악 보철, 진행성위암 위암전적출술, 골수염 스쿠류제거수술, 백내장, 순목피부 결손 등 총 301회의 수술이 이루어 졌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제 3세계의 구순구개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선물해 줌으로써 인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 – B.C.P(Beautiful Change Projec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순구개열 뿐만 아니라 심장관련 질환, 척추 측만증까지 총 130여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선물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해외의료팀을 구성하여 구순구개열 수술 및 내과, 피부과, 치과, 안과 등 의료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외에 비의료서비스로 목욕, 이미용, 생활상담, 법률상담, 사회복지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 재활을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복원의료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권 신청, 장애인 등록 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협력병원 안내, 장례 등을 도와드립니다.

■ 등록환자 : 9,187명 / ■ 진료건수 : 66,258명 / ■ 입원건수 : 36,242명



무료진료소 시절이 지나고, 2002년 드디어 다일천사병원 설립!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병원의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인종과 성, 나이, 국적, 성품 등 어떠한 차별 없이, 치료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적 돌봄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권리라고 믿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다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한발 한발 더디더라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여...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하고 얼마 안 된 무렵, 매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나도 봉사에 참여하면 멋지겠다는 생각에 산부인과 진료 자원봉사 문의를 했었다. 그 당시 조교수여서 주중 일과시간을 넣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만, 무작정 불타는 봉사의 열의가 생겼던 것 같



진료 중인 이선영 의무원장

다. 이유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결과는 병원쪽에서 거절이었다. 그 후 봉사의 열의는 단단히 접혔고 열심히 환자보고 공부하고 외국연수도 다녀오고 아이도 키우며 10년 이상이 흘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월급의 일정부분의 기부 정도였다.

작년에 오랫동안 일하던 병원을 갑자기 그만 두고 놀게 되자, 다일 공동체 소식지에서 영성수련안내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거기서 다일천사병원장이신 이명현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분이라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한 달간 다일천사병원에 자원봉사를 부탁하셨을 때 예하고 받아들였었다.

다일천사병원에 대한 첫인상은 10년 전 예상과 매우 달랐다. 병원이라기보다는 가정의학과 의원급 진료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인력과 시설에 찾아오는 환자도 적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복지가 매 해 개선되어 가는 덕분에, 경제적 극빈층 및 보험 없는 불법 체류자들도 사회의 도움으로 시설 좋은 큰 병원의 혜택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자, 시설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천사 병원과 같은 무료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병원 초장기에 활발했던 자원봉사 활동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병원의 기구 및 시설들 또한 오랫동안 방치, 유실되어 정상적인 진료에 사용하려면 새로 구입하거나 손을 봐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새로 부임할 봉사경험이 많으신 의무원장의 일이었다. 자원봉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무원장이 필요할 때 기끔 돋는 것이었다.

올해 8월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 후, 잠시 시간을 내어 네팔 다일 밥퍼 센터를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다. 천사병원 이명현 원장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 이분과 참 인연이 깊구나 생각했는데 그 후 얼마 안되어 이명현 원장님이 다일 천사병원 의무 원장을 맡아 달라고 전화를 하셨다. 김민준 의무원장이 2년간 방글라데시로 의료봉사를 가는데 일정이 당겨져, 갑자기 사직하게 되어 땀 뺑 전문인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내가 10년 전 의료봉사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졌던 것과, 작년에 다일 천사 병원을 잠시 보고 그 환상이 실망으로 바뀌던 것이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천사병원 의무원장직을 거절할 이유가 많았다. 나는 천사병원의 문제점들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얹히기 싫으며 해결 능력도 전혀 없으므로.

17년간 나의 진료 경험은 주로 여성 암환자들 수술 및 항암치료에 전문화 되었는데 천사병원의사는 모든 과를 다루는 일반의로 일 해야 하고 그간의 전문적 경험은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내가 노는 의사라지만 그래도 이건 전문 인력낭비다. 당연히 거절하여야 했다.

그런데…, 예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 진료실에 앉아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마음이 기쁘다. 눈앞의 문제들이 불안하지도 않다.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정상일까?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걱정도 사라진다.

누군가 비정상인 나를 한심하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2012 다일패밀리 홈 커 링 스 쿨

두근두근!! 9월 달이 되면 국내/외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바로 다일패밀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 스쿨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매년 있는 행사이지만 홈커밍 스쿨은 다일공동체에서는 마치 명절과 같이
다일패밀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며,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올해 홈커밍 스쿨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②



③



④

- ① 8개국에서 모인 해외분원장님들~
- ② 해외 분원장님! 환영합니다~
주카주카
- ③ 9월 4일~9월 8일,
국내/외 분원장 워크샵
- ④ 서울다일교회예배 후,
다일 패밀리 다 모여라!



이 웃 을
행복하 게
세상 을
아름답 게

24 th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일의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기쁨과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그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2012년, 다일이 24세 청년이 되었고 이젠 좀 더 건강한 장년으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일의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 분 뜻에 대한 열망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가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24주년, 다일천사병원 개원 10주년,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원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다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오랜시간 다일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2012년 9월 20일
다일천사병원에서, 작은형제 최일도 올림

- ① 환상의 콤비 사회자,
최일도 목사와 김미화 홍보대사
- ②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홍보대사의
환상적인 플룻 공연
- ③ 소망교회 풍물팀의
신나는 마당놀이와 찬양메들리
- ④ 창립 24주년을 축하고
격려해주신 송영길 인천시장
- ⑤ 어르신들의 흥을 돋구어준
현미님의 편소리 공연
- ⑥ 백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 ⑦ 박상원 홍보대사 밥퍼 봉사 중
- ⑧ 밥과 국을 식판 기득 담고 있는
이개안 협력대사(좌), 박선규 협력대사(우)
- ⑨ 밥과 반찬 골고루 담는 바쁜 손길들
- ⑩ 2부 행사로 진행된 K-TV
멘토링 토크 녹화를 마치고 다함께







다일 제자훈련학교, D.T.S 24기 훈련생들의 3개월간의 동거동락을 시작하며...

가을의 시작과 함께 북안리 다일평화의 마을에는, 사는 지역도, 나이도, 외모도 너무나 다른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좀 더 멋진 삶을 위한 스페쌓기와 일에 열중할 시간에, 가평의 시골마을에 온 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3개월간의 D.T.S 훈련을 시작했을까요?

최룡 (다일제자훈련학교 24기 청룡님)

저는 중국에서 온 최룡입니다. 중국다일공동체에서 자라고 현재는 훈춘다일어린이집의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D.T.S 훈련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랍고 한 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 받는 훈련이기에 또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과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 보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로 인해 마음이 놓였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다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루 세 번의 예배(조도, 대도, 만도)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인 삶을 살면서 아주 좋은 느낌도 있지만 내 자신의 나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살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DTS훈련이 끝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지 아주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일공동체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정수 (다일제자훈련학교 24기 조이님)



D.T.S 훈련에 들어 온지도 이제 2주가 넘어갑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신비와 아름다운 설곡산의 모습을 매일 보며 생활하니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초 우연히 알게 된 다일 공동체 영성수련을 통해 이전엔 몰랐던 나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D.T.S 훈련을 받게 되니 영성수련과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어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루의 세 번(조도, 대도, 만도) 예배를 통해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만나주시고, 삶으로 드려지는 노동기도를 통하여 몸으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과 순종을 배우며, 동기생간에 사랑의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생활이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한 차원 높은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DTS 훈련을 준비하며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망설여졌던 마음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니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었더라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내 기쁨을 쫓아 만족 없이 살았을 터인데, 지금은 몸의 불편함이 많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 수 있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자연 속에서 좋은 D.T.S 동기생과 함께 생활하며 예배하니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한행수 (다일제자훈련학교 24기 스카이님)



D.T.S 훈련에 대하여 막연하게는 알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올 때에는 훈련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다~일이다(다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내 성격에 한 달은 할 수 있을까? 란 생각에 설레임보다 약간 두렵지만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자 결심하고 시작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 기도부터, 노동기도, 저녁기도, 대침묵에 이르기까지 저를 돌아보고 또 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24기 동기생들과의 생활 중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때때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이 훈련이 상상할 수 없는 위력으로 다가옵니다.
 나날이 익어가는 곡식처럼 내 마음도 침착하게, 보다 여유 있게 내면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동기도와 기도가 눈에 보이는 행위라면, 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고 있음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나이가 훈련생 중에 제일 많아 내 고집과 아집이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먼저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함께하는 동기생들이 있어 힘이 됩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간절히 보고 싶고, 집에 가면 먼저 내 손으로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가족들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마누라

깊어가는 가을처럼 저의 내면이 더욱 성숙하게 되길 기도하며....

다일공동체 창립 24주년 기념일인 9월 10일부터
 다일 D.T.S 24기 훈련을 시작한 한행수(스카이님),
 목정수(조이님), 최룡(청룡님), 분단(천국님),
 마리(기쁨님) 총 5명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다일공동체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재들을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길러내고 그들이 찾아와 또한 각 나라 족속들을 섬기며 일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현재 한국의 경기도 가평의 북안리 평화의 마을에서 다일 제자훈련인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를 진행중이며, 나이가 캄보디아에 세워질 아시아다일비전센터에도 다양한 청년들에게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오늘은

일시분기 시험이 있는 날

아이들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심각한 고민에 빠진 마리엔

열심히 풀어보려는 마크

사뭇 진지해진 장난꾸러기들입니다

시험을 마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새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얘들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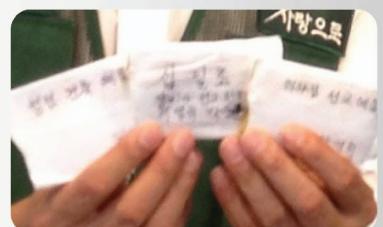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의 손을, 항상 다정하게 잡고 오시는 할아버지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손에 손을 잡으시고 다정히 밥퍼에 들어오셨습니다.

자녀들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두 분만 단출하게 생활하시며
거의 매일 밥퍼를 찾아오시는 금슬 좋으신 노부부입니다.

점심배식 시간이 다 끝난 후, 밥퍼를 다시 찾아오신 두 분께서
뒷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던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변창재 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귀하게 여겨져서요...”
“우리부부가 직접 가서 전할 수 없으니까”
“변 선교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내마신 정수기 종이컵엔
차곡차곡 잘 접어서 넣어둔
지폐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세 봉투 하나하나에 쓰인 글씨를 보다가 그만 저절로
눈물이 떨구어 졌습니다.



‘박동균 곽영희’라고 종이컵 봉투에 쓰여 있는 이름과 함께
더 어려운 아프리카를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Tanzania

꿈이 있어 행복한 탄자니아



지난 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N.G.O등록을 잘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탄자니아의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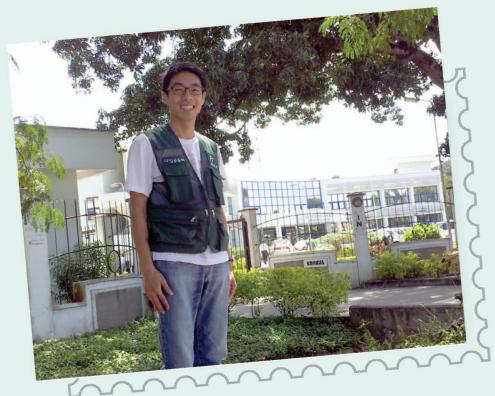
그동안 진행되었던 따끈따끈한 소식들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꿈 하나, 탄자니아 땅에 세워지는 다일공동체

잘 아시는 것처럼, 탄자니아에 다일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일이 NGO 등록이었고, 두 번째로 체류 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TIN NUMBER 신청입니다.



TRA건물을 뒤로하고 환하게 웃어봅니다. 하쿠나마타타!

* TIN NUMBER는 한국의 세무서 발행 사업자 고유 번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IN NUMBER가 있어야 다일공동체가 탄자니아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TIN NUMBER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TRA(TANZANIA REVENUE AUTHORITY)-한국의 국세청-에 가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니 사무실 임대 계약서부터 마을 동장의 사무실 실사를 받고, 추천 레터까지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절차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연약해지지만, 그 서류들 너머에 든든히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NGO 등록도 최단기간에 신기록을 세우며 발급 받게 하신 주님께서 TIN NUMBER 또한 친히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TRA 건물을 나오며 앞에 서서 환하게 웃어 보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꿈 둘, 다일공동체가 생명의 물이 되는 꿈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책가방을 가지고 다닐 아이에게, 무거운 물 한동이가 지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좋기만 한지 맨발로 서서 마냥 웃기만 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니 마음이 쓰라려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깨끗한 물 뿐만 아니라 물 자체가 부족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은 하루 20~50리터라고 합니다.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며 마실 물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초마다 아동 한 명이 더러운 물과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또한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물을 길어 와야 하는 아이들은 책가방대신 물동이를 잡아야 하고, 결국 교육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커다란 물동이 가득 물을 길어오는 미을의 아이들

다일공동체는 1차적으로는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생명의 물을 전하려합니다.

꿈 셋, 탄자니아를 향한 아름다운 동행

1988년 청량리 역 광장에 나흘을 굶고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 한 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척박한 청량리 땅에 심겨져 2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넘어 중국,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 탄자니아 까지 사랑의 밥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 설립자, 최일도 목사와 함께하는 탄자니아다일공동체 개원 예배와 비전트립이 11월 4일~9일까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하는 날, 탄자니아 땅을 바라보시며 탄자니아를 향한 꿈에 동행하실 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Karibu sana!(카리부 싸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글/ 변창재 원장(탄자니아다일공동체)

희망을 엮는 우리!



Cambodia

2012년 5월부터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센터에 엄마들이 두련두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놈끄라움 마을 주민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곳의 엄마들은 부업거리를 찾고 싶어도 할 일을 찾지 못하였는데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전통공예사업 교육생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전통공예사업의 시작으로

첫 번째는, 프놈끄라움 마을에 전수되었던 공예 기술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두 번째는, 교육생으로 참여한 엄마들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이 많은 이 곳 마을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 부레 옥잠.

가장 흔한 것을 유일한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만들어 내는 물건은 다양합니다.

뽐내기 모자와 가방, 악세서리에서부터 생활에 필요한 가방까지 상품은 10여 가지나 됩니다.

전통공예 사업을 만나기전 엄마들의 삶은

하루종일 물이 차오는 것만 우두커니 바라 보기도 했고, 남편의 학대에 못이겨 아이들을 버리고 떠날까
도 생각했고,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나날도 많았던 엄마들...

4개월의 교육 기간을 거쳐 전통공예 기술을 배우게 된 엄마들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기술로 돈도 벌며 다른 엄마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기술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다

이제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전통공예반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엄마들은 또 다른 희망을 염두할 것입니다.

그 희망에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프놈끄라움 마을에 소중한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한 발 나아가 이곳이 바로 전통공예 기술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곳에 캄보디
아 사람들의 손재주도 보여주고, 오래오래 이어져 온
전통공예기술도 뽑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가난한 마을 주민들의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모두가 다함께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꾼 뿐이야 예수.



글/ 이옥주 부분부장(캄보디아다일공동체)





멈유은 할아버지의 소원

어느날 한 소년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휠체어가 필요해요”라며 다일공동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56년 전 멈유은 할아버지는, 어린시절 할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아 다리를 다친 이후, 성장하면서 더욱 왼쪽 다리 마비와 무릎아래 부분은 휘어져 펴지지 않게 되어 심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어서도 불편한 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집안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나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없이 집에 있는 이들과 손주들을 통해서입니다.

집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매일 손주들이 이웃집을 다니며 음식을 얻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밖을 나가다 쓰러지셔 이마와 팔,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느날, 손주 도옴은 다일공동체센터를 찾아와 “우리 할아버지에게 휠체어가 필요해요”라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4살 도옴은 집안의 가장이자 할아버지의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6살때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도옴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할아버지 잘 돌보는게 제 꿈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 도옴이와 밖에도 나가고 싶고, 이웃집에 놀러도 가고싶어 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겐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할아버지에겐 소원인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손주 도옴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휠체어의 Hope”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시엠립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봤으나, 일회용 의자에 바퀴를 붙여 만든 낡은 휠체어 뿐이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휠체어가 생긴다면, 손주 도옴이가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 다일공동체센터에 놀러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꼭 기대합니다.



| 후원안내

국민 467701-01-128318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문의 02. 2212. 8004 www.dail.org

DAIL
NEWS



01 〈다일복지재단〉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02 〈설곡산다일공동체〉 반기운 발걸음들

국내분원소식

01 다일복지재단

다일공동체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9월 4일 다일공동체 창립 24주년(9월10일)을 맞아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 마당 야외 식당에서는 노숙인, 무의탁 노인 약 900여명의 진지를 준비했습니다. 축하를 위해 모인 홍보대사, 협력대사 및 내빈들과 노숙인, 무의탁 노인들이 어우러진 나눔과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2부 행사로는 밥퍼식당에서 섬김과 나눔 봉사와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K-TV 멘토링 토크 '시대공감Q' 녹화가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창립기념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조화롭고 화목하게 훈련받고 있는 D.T.S 훈련생들을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기간 영성수련 안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설곡산다일공동체에서 1단계 영성수련 '제 139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가 열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열리지만, 꼭 예비된 분들이 오셔서 영과 육이 쉼을 얻고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세상을 찾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방문자 소식

10월에는 인천순복음교회 찬양기타반 30명, 춘천중앙감리교회 부부 15가정, CBS 방송국 직원 40명 등이 설곡산다일공동체를 찾아옵니다. 영성과 침묵의 성지를 찾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분들이 설곡산을 찾아 영성의 큰 샘에서 목마름을 해길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지진이 났을 때라고 생각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숨어있는 연습도 체험해볼 수 있었던 안전교육이었습니다.

현장학습 – '서울숲을 다녀왔어요'

지난 9월 6일,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이 시원해진 바람을 맞으며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숲을 둘러보면서 숲에서 살고 있는 자연생태식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찾아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넓은 풀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연계활동 – '우리 동네 시장가기'

9월 11일, 예향어린이집 행복반 유아들이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우리 동네 시장 가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 행복반 아이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 시장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하나씩 정해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선생님을 따라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에서 상인아저씨의 친절한 설명도 들으며, 예향친구들도 스스로 직접 물건을 사보았습니다. 행복반 친구들이 직접 만든 바구니에 친구와 함께 산 물건을 담아,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좋은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02 설곡산다일공동체

D.T.S 훈련원은 설곡산으로 이동
설곡산의 가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D.T.S 훈련원이 뚝안리에서 설곡산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을 추구하면서, 무엇이나 준비되고 무엇이나 받아들이며 순명으로 제자도를 배워가는 D.T.S는 이번 제 24기부터는 조정우 단비님이 총무로 임명을 받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03 예향어린이집

유아안전교육 – '재난대비 안전교육'

9월 5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주제는 지진이 났을 때의 대처방법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03 〈예향어린이집〉 우리 동네 시장에 갔어요



04 〈베트남다일공동체〉 포스코 행복나눔125 봉사팀

9월 생일잔치

9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도, 축하해주는 친구도, 모두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닮아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주는 생일선물을 받고, 생일맞은 친구들의 얼굴에 힘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해 외 분 원 소식

04 베트남다일공동체

포스코 행복나눔 125 행사팀 밥퍼 봉사
베트남에 있는 포스코 전 계열사의 '행복나눔 125'(한 달에 1가지 선행하기, 한 달에 책 2권 읽기,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 운동의 선행하기 일환으로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에 봉사를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포스코ICT 허남석대표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의 모든 법인장들이 밥퍼센터를 찾아와 직접 봉사도 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보다 많은 인원인 350명에게 배식을 하였고, 돌아가는 길 포스코에서 준비한 350명분의 라면도 한분 한분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일공동체도 행복나눔125 강연장에 사진

전시와 모금함을 설치하여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84-12-6317-7912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무실 번호는 070-8220-6160입니다.

우리은행 우수행원 해외연수

9월 6일을 시작으로 9월 13일, 20일, 3회에 걸쳐 우리은행 우수행원(총90명)과 우리은행 호치민 지점 직원들이 밥퍼 봉사를 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쌀 1,000kg, 라면 125박스 그리고 간식도 준비하여 섭겨 주었습니다. 우리은행 우수행원과 호치민지점 직원들이 호치민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밥퍼 센터를 방문하여 봉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한분 한분에게 기쁨으로 선물을 드리자 선물을 전해 받은 분들의 얼굴에도 힘박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을 전해준 봉사자들이나, 그 사랑을 전해 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서림베트남 임원식대표 숟가락 후원

서림베트남 임원식대표는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프놈펜 밥퍼센터에 숟가락 300개를 후원한 것에 이어 씨엠립 밥퍼 센터에도 숟가락 1,0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쉽게 훑어지고 끊어지던 숟가락이 이제는 예쁘고 튼튼한 숟가락으로 바뀌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전화번호변경

기존에 사용하였던 전화번호가

05 중국다일공동체

훈춘은 지금 축제분위기

태풍으로 학교들이 임시휴교를 하는 등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중추절과 국경절, 조선족 자치주 60주년, 훈춘시 체육대회가 겹치며 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멀리서 대학과 고등학교를 다니는 형님, 누나들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개학 후 조용하던 집이 다시 활기를 뛰고 있습니다.

최룡간사, 한국에서 D.T.S훈련 시작

중국 다일공동체 최룡 간사는 다일 제자훈련인 D.T.S를 받기위하여 한국에 갔습니다. 중국 다일공동체 온 가족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큰 형님을 보내며 축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D.T.S 기간 동안 큰 은혜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생후 6일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입니다. 공공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훈춘어린이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족



05 〈중국다일공동체〉 새식구 인사드립니다~

06 〈필리핀다일공동체〉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07 〈네팔다일공동체〉 강 범람 복구를 위해 으쌰!

이 된 아기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중국다일공동체 가족 모두 아기와 더불어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6 필리핀다일공동체

의료봉사팀, 구순구개열 아동 무료수술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이사장 정필훈)는 8월 19일~24일까지 필리핀 바기오시티에서 구순구개열 아이들에게 무료수술 봉사를 하였습니다. 필리핀다일공동체에서도 갓난아기 2명과 작년에 1차 수술을 받았던 니카가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바기 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바기오로 가는 도중, 갓난아기 중 1명인 제임스는 감기에 걸려 내년 2월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 돌 아와야 했습니다. 의료봉사팀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8월 26일 다일비전센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밥퍼 봉사도 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에게 구순구개열 수술을 통해 아름다운 미소를 찾게 해 주신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의료봉사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8 네팔다일공동체 소식

마느하르강 범람과 재민발생

매년 이맘때쯤이면 네팔다일공동체 근처의 마느하르강물은 범람하여 밭퍼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며, 빈민촌 주민들은 수해를 입게됩니다. 다행히 올해는 하루 만에 물이 빠져서 다음 날부터는 밥퍼사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 위로와 함께 강뚝 공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대안생리대 사업 및 미싱 교육 시작

한국 사랑의 열매재단을 통해 채택된 사업인 네팔 빈민촌의 '기임기 여성들을 위한 인식개선 및 대안생리대 보급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미싱을 배울 10명의 여성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곧 본격적으로 미싱교실이 시작됩니다. 네팔다일공동체의 첫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건강증진과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팀세나 부원장 가족, 한국에서 D.T.S 훈련
 팀세나 부원장과 부인 비슈누, 딸 벌샤, 아들 아시스 모두 4명이 한국에서 있을 3개 월간의 다일공동체 D.T.S 훈련을 위해 10월 초 한국에 입국합니다. 또한 팀세나 부원장은 10월 한 달간 미국을 방문하여 박종원 원장과 함께 애틀란타를 비롯한 시카고, 뉴저지, 뉴욕, 시애틀, 남가주 등에서

간증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09 미주다일공동체 소식

박종원 원장, 애틀란타 네팔선교보고회

네팔다일공동체 원장과 미주다일공동체 원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박종원 목사의 미국방문과 함께 네팔선교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보고로는 네팔 집시촌의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청소년축구팀과 청소년자원봉사팀 이야기로 미주다일후원회를 통해 제 3세계의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카고 사랑의 바자회

9월 21일, 시카고 다일공동체 협동간사인 이숙의 집사를 중심으로 시카고 지역의 영성벗님들과 후원회원들이 제3세계 빈민촌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한인문화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이숙의 집사가 헌신적인 수고로 준비된 음식바자회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은 많은 분들로 인해 예정시간보다 2시간 일찍 음식이 끝났습니다. 섬김과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단 김고운 실장, 미주 단기파견근무

다일복지재단의 김고운 실장이 6개월간 미주다일공동체 파견근무를 합니다. 김고운 실장을 통해 미주다일공동체의 사역이 더욱 안정되고 활기가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다일의 자원봉사자"



중소기업중앙회 신우회는 매월 토요일마다 밥퍼 봉사를 합니다. 9월 15일에는 특별히 함께 온 비누방울 공연팀의 공연을 보며 어르신들은 싱글벙글이셨습니다.



국내 최대의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으로 주목받고 있는 SK플래닛이 3주년을 맞아 1,100개의 떡을 만들어 밥퍼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 있는 농수산물 상품권을 후원하였습니다.



미국 종합화학 회사인 한국다우케미칼 직원들은 이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방송, 인터넷, 모바일 결합의 선두주자인 티브로드는 어르신 한분 한분께 정성껏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무법인 석성 가족들이 밥퍼를 찾아 직접 음식 재료를 다듬고 식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이 엄청난 양의 무설기도 뚝딱! 파다듬기도 뚝딱! 끝내며 열심히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이웃건물에 있는 삼성화재에서는 농촌의 사과를 구입하여 밥퍼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고자 밥퍼를 찾아왔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8월 23일~9월 22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9월 신규후원

JINGUANGHAO, KT02GLOBALENTREPRISE, LIZHENJI, 강경묵, 강윤정, 고숙영, 공무원관리공단, 구경모, 구창우, 권기정, 권순금, 김경희, 김광섭, 김도원, 김민기, 김병국, 김보홍, 김부자, 김상윤, 김선현, 김성동, 김수정, 김순녀, 김연산, 김연수, 김은성, 김재천, 김종환, 김지민, 김지혜, 김해영, 김현정, 김홍열, 김화자, 김훈태, 김홍현, 김희정, 나은숙, 남화통상(주), 도은진, 뜨인돌교회 청소년부, 문춘심, 민사라, 박서현, 박소명, 박애단, 박예진 (온누리JDS), 박재욱, 박현옥, 백규호,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 서동연, 서상덕, 선인숙, 성경숙, 소혜리, 순성근, 신동규, 신상익, 신은자, 이종식, 신진희, 신한금융지주회, 안복례, 안성희, 안양호, 오래현, 윤용순, 윤철상, 이금순, 이미림, 이미영, 이승경, 이영미, 이정민, 이정재, 이지혜, 이철수, 이형숙, 이홍순, 임경순, 임정희, 임종태, 장희선, 자오토이캡또, 정미숙, 정병하, 정유연, 정은경, 조현숙, 조홍식, 중소기업은행 청량리지점, 채창기, 천명희, 천순자, 최자희, 최혜옥, 하현경, 한국다우케미칼(주), 한승삼, 후원쓰록뿌억길

밥퍼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옥합선교회, 에이엠지코리아, sk텔링크, 지혜인, 흥경화, 김성철, 김수일, 소망봉사팀, 국민은행 성동지역본부, 박종일, 일산은혜교회, 최주영, 이종욱, 서울메트로, 황귀중, 임엔글로벌, 서장선, 양순화,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 나은숙, 김화자, 최주영, 흥남숙, 최경근, 최자희, (주)에이엠지코리아, 윤숙옥, 다우케미칼, 신용회복위원회, 안성희, 국방홍보원, 이일옥, 이영숙, 공무원연금공단, 티브로이드, 광현교회, 권혜진, 윤현숙, 정신남

[후원물품]

8/21 두리반–김치 1박스
8/22 서울우유–우유 1008개
9/ 6 김영월–쌀 20kg
9/ 7 sk플래닛–떡 1100개
9/11 중소기업중앙회–이불 30채
9/12 두리반–김치 1박스
9/15 동대문적십자–사발면 15박스

〈 해외분원 〉

중국다일공동체

[방문&후원]

김성재(Obey & Praise), 이숙의(시카고 스마일, 스마일피기님), (주)소명칠강, 이병준, 이현신, 평씨 후원자, 대전 동안교회, 이은

준, 한기모, 차지훈, 지춘란, 양자선교회(대표 히에스더 목사), 한해연, 박예진, 심형, 이효원, 이영민, 유성수, 김진영, 김지훈, 김학용, 이은준, 춘춘시 부련회, 영광제빵(빵 후원), 하은이네(물품후원)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

대우 INTERNATIONAL,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김철민, 포스코SOUTH ASIA, 장현설유, 포스코 ICT(\$1,800), 포스코 베트남(1,200만동), 박정규(50만동), 우리은행(300만원), 강훈구(\$100의 기적)

[정기후원]

정영숙, 전기성, 송윤서, 흥지송, 추원미, 신주원, 조향찬

[물품후원]

서림 베트남 임원식 대표(술가락 1,000개) 도넛도넛(도너츠 178개),

[모금함]

포스코 베트남(352,000동), 포스코 행복나눔125(12,094,500동), 두레박(512,500동)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조윤현 외 32명, 포스코 ICT 김광석, 정혁선, 박용남, 장준화, 이인규, 이택희, 김성태 외 10명, 대우 INTERNATIONAL 최시호 외 6명, 포스

코SOUTH ASIA 서도석 외 6명, 포스코 허남석 외 37명, 전경주, 이수빈, 최하승, 최용하, 안연숙, 다빈, 다현, 다원, 심상원, 심수진, 심홍진, 심규선, 조영권, 오채린, 김수민, 차준호, 이은향, 김막례, 김형환

필리핀다일공동체

[방문&후원]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청년회, 하나투어 필리핀 지사, 신동환, 신동이, 전용민, 지일환, 한상소, 김은숙, 필리핀PTS한인교회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친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평생지기, 진성교회 캄보디아선교팀, 서울흥성교회 조정숙, 곰's배낭1기, 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 이현수, 현영례, 광주북구청 비서실 김순권, 광주 다일교회 최인옥, 부산은성교회 김태승, 엄상렬, 허환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고창근, 광양중앙교회, 하나투어 김혜란, 원덕가족, 이희웅, 이재호, 홍사모 회원일동, 인천연수구의회의원 의장 박기주, 인천연수구 이정환, 주재훈, 대한기독교감리회 청년관 일동, 프놈펜제일교회, 조은학교, 유종인, 설나현, 김철민, 송영범, 손혜진

다일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 사랑의 쌀 화환

한번만 쓰고 폐기하는 1회용 화환 대신에 개업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애경사에 기존의 꽃 화환 대신 사랑의 쌀 화환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나눔쌀 상품권을 전달하여 4인 가족이 2달 이상 충분히 먹을 만큼의 나눔 쌀이 다일공동체에 주문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

후원계좌 씨엠립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영성수련

Dail

11월

10월 01일~05일 139기 아세찾기

10월 31일~11월 04일 유럽영성수련(파리) 아세찾기

■ 11월부터 아름다운 세상찾기 및 영성수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활혹한 여행이었다.”

-한비야(전 월드비전 구호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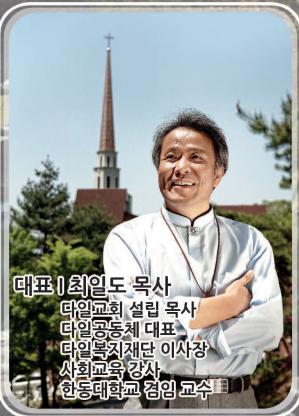
설곡산 다일공동체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성성을 침묵과 노동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쉼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수련회·단체 및 개인 시설이용안내

개인피정, 교회와 각종 단체의 수련회 및 세미나, 결혼, 돌잔치, 생일축하 등을
한달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어 소속, 단체명, 예약
인원, 담당자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최일도 목사

다일교회 설립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사회교육 강사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저서 밥짓는 시인 펴주는 사랑(도서출판 다일)
마음열기(중앙M&B)

더 늦기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동아일보사)

행복소서(위즈덤하우스)

밥·心(마음의숲) 등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6375-8004

설곡산다일공동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단체와 교회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을 통해 쉼과 사색과 명상 및 침묵기도를 자유롭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1

모 바 일

다일 TV 개국



드디어 **11월 1일** 부터
매일 매일 다양하고 생생한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에브리온(Every On)TV “채널 111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국 11월 1일

채널 111번

시청 방법



스마트폰

애플스토어나 구글 마켓에서 ‘에브리온TV’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111번 다일TV 채널 선택



일반 PC

검색창에서 ‘에브리온TV’를 검색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한 후
111번 다일TV 채널 선택